

북한 해양도시 연구에 대한 소고¹⁾

윤인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mouthpiece@kmi.re.kr

I. 왜 해양도시인가

‘도시’라는 주제는 1990년 이후 북한연구 분야에 등장해 201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일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²⁾ 북한은 독특한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거기에는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외부에 알려진 정보의 양마저 적어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라는 개념으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연구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³⁾

아쉬운 점은 연구 대상 도시가 반복되고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정보 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할 것이다. 28개 북한 도시 중 지금까지 연구 빈도가 높은 도시는 평양, 혜산, 청진, 함흥, 개성, 신의주 등으로 수도인 평양을 제외하면 주로 접경 지역, 시장화가 발달한 지역,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북한 도시 연구가 20여 년 이상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주제가 확장되고 있지만 연구 대상 도시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⁴⁾

북한 도시는 인문학, 경제학, 지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유형과 층위로

1) 본고는 윤인주·박희진·이찬우·김혁·윤무근·진희권·채수란, 『북한의 해양도시 I: 남포, 나선, 원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일부를 발췌하고 재구성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 북한 도시 연구는 1990년대 17편, 2000년대 28편, 2010년대 이후 106편으로 증가했다(박성열 외, 2021, p.133).

3) 청진·신의주·혜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변화를 연구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최완규 편(2004: 2006: 2008), 통일 대비 주요 거점으로 남포·신의주·나선·청진·원산을 연구한 이상준 외(2011: 2012), 함흥·평성의 도시사를 연구한 동국대학교 도시사연구팀의 고유환 외(2013: 2014), 고유환·박희진(2013: 2014), 평양·혜산의 주민 삶 공간을 연구한 조정아(2017), 청진·신의주의 도시 경제를 분석한 홍민(2020) 등이 대표적이다.

4) 다행스텝제도 승설대학교 도시연구단이 남포·순천·나선·청진의 변화와 주민의 삶을 연구할 계획이다(2024.6~2027.6).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28개 북한 도시 중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12개로 약 43%를 차지한다.⁵⁾ 12개 도시 중 4개 도시는 서해안에, 8개 도시는 동해안에 분포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지리적 특성상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 주목한 계기는 북한이 지정한 27개 경제특구·개발구의 위치에 기인한다. 흥미롭게도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는 해안선과 국경선을 따라 띠를 두른 것처럼 배치되어 있다. 경제특구·개발구는 대외개방의 창구이면서도 북한 내부세계와는 거리를 두는 장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가 활성화되었다면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과 금강산의 특구는 북한주민의 일상과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북한경제 내부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한 것은 나선경제무역지대 정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경제·일상생활 중심인 도시는 어떻게? 해안선과 국경선에 배치된 경제특구·개발구가 바깥세상과의 소통 창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화와 탈북으로 상징되는 북·중 접경 도시에 이어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도시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도시들은 바닷가도시, 연안도시, 해안도시, 해양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육지 끝자락에 붙어 바다와의 경계성에 방점을 둔 바닷가도시나 연안도시, 해안도시라는 이름보다는 바다를 통한 외부와의 소통 및 바다 공간·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해양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한다. 북한 도시 전반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최근에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해양도시가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해양수산 인프라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도시에서 진행되거나 계획되었던 남북경협을 통해 해양도시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II. 북한 도시에 대한 이해

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북한 도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도시와 유사한 방향에서 설계되었다. 사회주의 도시 계획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와 도시 규모의 성장 억제에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사회주의 도시는 자족적이며 균형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도시 건설 방법은

5) 도시의 행정구역이 바닷가, 해안선까지 닿아 있는 도시

공업시설과 주거지를 분리시키고 자족적인 주거 단위로 소구역을 설정하여 소구역별 서비스 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이때 도심부는 이념적 학습장소로서 건설된다.

북한 도시 역시 인구수에 따라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기능을 연계하여 자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주지역, 산업지역, 교통지역, 녹화지역, 위생보건지역 등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 도시는 28개로 평양(325만명)과 삼지연(3만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만~30만명가량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직할시와 특별시를 제외하면 도별로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개의 도시가 있다.

도시의 형태와 역할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 도시는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 북부 내륙 도시, 서부 내륙 및 연안 도시, 동부 해안 도시, 평양의 위성 도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대도시는 각 도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자연자원, 교통발전, 인구밀도 면에서 앞서는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등이다. 북부 내륙 도시는 균형적인 생산력 배치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연안의 공업시설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고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에 따라 본격 개발된 만포, 강계, 희천, 혜산 등이다. 서부 내륙 및 연안 도시는 평야지대에서 도시의 식량을 지원하는 농업 기능을 하는 정주, 안주, 사리원, 해주 등이다. 동부 해안 도시는 공업이나 수산업 등에 특화된 김책, 나선, 단천, 신포 등이다. 평양의 위성 도시는 평양의 규모를 관리하면서 행정 소재지 역할을 분리시킨 남포, 순천, 평성, 송림 등이다.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 개발 동향

김정은 시대에 대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는 평양과 삼지연이다. 이 두 도시에는 김정은 시대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평양시는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라는 명명하에 현대화되고 있다. 평양은 “사회주의 문명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선경’ 도시로 선전되는 가운데, “선편리성”, “선미학성” 등을 건축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웅장·화려하고 풍치 수려한 세계적 도시, 생태도시, 공원 속의 도시를 표방한다.

삼지연은 규모가 작지만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북한식 계획도시에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을 더한 형태로 선전된다. 이때 사회주의 문명이란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계화를 교차하는 발전과 개혁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양, 군급기관, 살림집, 지방공업, 상업봉사, 체육문화, 교육보건 등 구역별로 건축을 배치하고 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는 남포, 나선, 원산 등의 개발이 대표적이다. 남포는 도시건설

총계획(2018년)에 따라 항구문화도시 개발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체육문화, 교육복지, 경공업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나선은 나선시 꾸리기 사업(2019년)에 착수하여 공공건물, 살림집, 관광지, 경공업 시설이 더해지고 있다. 원산은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2018년에 착수하여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고 발전소, 축산기지, 과수농장, 경공업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III. 북한 해양도시의 발전과 인프라: 남포, 나선, 원산

1. 항구문화도시 남포

남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 있고 공업 발달의 역사와 전통,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력 기반까지 골고루 갖춘 도시이다. 평양을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이자 대외교류의 관문이며 금속·기계공업 등도 발달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진남포(1906~45)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였는데, 당시 진남포항은 일반화물 부두와 남포항 청사가 있는 정도의 규모에 불과했지만 현재 남포항은 진남포제련소가 있던 곳까지 확장되어 있다.

남포는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되었고, 1980년대에는 서해갑문과 대동강 관개수로 공사를 거치며 한층 더 발전했다. 1990년대에는 북한의 경제위기로 남포시도 쇠퇴하였으며 2004년에는 와우도구역과 항구구역만을 남긴 특급시로 격하되었다. 2010년에는 특별시로 다시 격상되어 현재 5개 구역과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포가 특급시로 격하되었을 당시의 행정구역인 와우도구역과 항구구역이야말로 남포의 핵심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역은 서해갑문을 거쳐 대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금속·기계·선박·화학·건재 공장들이 위치한다.

남포의 해양수산 인프라로는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조직한 남포수산사업소, 북한 최초의 쌍선체 어선을 개발한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서해 어장 및 조기 양어 기술을 개발하는 서해수산연구소, 수산·기관·항해·가공·양어양식·기계공학 학부가 있는 남포수산대학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남포항에는 북한에 선적을 둔 선박의 약 65%에 해당하는 86척의 상선이 등록되어 있고, 해운 기업은 7개가 있다. 북한 항만 중 컨테이너 전용 부두와 석유화학 탱크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의 대표 선전물인 서해갑문과 물놀이장·식당·정각·낚시터·산책로 등을 신설한 와우도유원지도 있다. 조선소를 비롯해 배수리공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영남배수리공장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조선협력단지가 논의되었던 곳이다. 최근에는 화물선인 자력호(2016)와 장수산호(2021)를 건조한 바 있다.

<표 1> 남포의 해양수산 인프라

	수산	해운·항만	해양관광	기타
주요 인프라	① 남포수산물사육소 ② 남포대경수산사업소 ③ 서해수산연구소 ④ 남포수산대학	① 남포항(등록 상선 86척, 전체 대비 65%)* ② 해운 기업 7개*	① 서해갑문 ② 와우도유원지	① 남포조선소 ② 영남배수리공장 ③ 서해선박수리공장 ④ 남포해운선박공장
설명	① '조선로동당의 딸-청년여성 영웅'호 ② 북한 최초 쌍선체 여선 ③ 서해 어장 및 조기 양어 기술 개발 ④ 수산·기관·항해·가공·양어양식·기계공학부	① 컨테이너 전용 부두, 특급기업소(4천명 근무), 석유화학탱크·돌핀 증설 ② 과거 '남포-홍콩'에서 최근 '남포-다렌' 항로 중심으로 전환	① 대표 선전물 ② 물놀이장, 식당, 경각, 낚시터, 산책로, 배구장 등 신설	② 남포조선협력단지 (10.4 선언) 논의, 자력호(2016) 및 장수산호(2021) 건설

주: * 2022년 말 기준.

2. 국경해안도시 나선

나선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사 요충지로 부각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종단항(終端港), 즉 종점항구로 선정되면서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한국전쟁 후에는 전후 복구를 위한 소련의 원조로 정유산업 개발과 철도 현대화를 통해 항만과 철도 기반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91년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되었으며 남포와 더불어 2004에 특급시로 격하되었다가 2010년에 특별시로 다시 격상되었다. 이후 중국 및 러시아의 국가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나선항의 부두를 임대·현대화했다.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화물중계에서 시작해 중계무역과 수출가공, 더 나아가 관광, 금융, 제조·서비스 등의 종합 기능이 가능한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1990년대에는 나선항과 선봉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나선항 개발 협상 및 협약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2010년대 들어서는 나선-훈춘 간 도로와 나선-하산 간 철도가 연결되었다. 또한 나선대흥무역회사를 비롯한 수산물 가공공장과 식당,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도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화물중계, 수출가공, 관광 분야는 성과가 있는 편이지만 북한이 목표로 했던 금융·제조·서비스 분야의 개발은 비교적 더딘 편이다.

나선의 해양수산 인프라도 남포와 마찬가지로 수산, 해운·항만, 해양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골고루 형성되어 있다. 수산 분야에는 수산·양어·양식·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기관이 수산물 수출이 가능할 수준의 냉장·냉동·가공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나진항·선봉항·웅상항은 중국 및 러시아의 부두 입차, 유류 전용부두 및 저장고라는 점 등에서 특화되어 있다. 해양관광지는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 밖에 군용 선박을 건조하는 나진조선소와 동해 최대 선박 수리공장인 6월12일공장이 있다.

<표 2> 나선의 해양수산 인프라

	수산	해운·항만	해양관광	기타
주요 인프라	① (수산) 나진·선봉·수채냉·우암 수산사업소 ② (양어) 굴포담수양어사업소 ③ (양식) 나진·웅상바다양식사업소 ④ (가공) 나선물고기가공공장, 사향산 수산물가공사업소 ⑤ (무역) 나선대흥무역회사, 무역회사	① 나진항 (등록 상선 8척)* ② 선봉항 ③ 웅상항 ④ 해운 기업 9개	① 비파섬생태관광구 ② 우암해돋이부감관광지 ③ 웅상해양체육관광지 ④ 추진 휴가 및 별장촌 ⑤ 소초도유람선관광 ⑥ 갈음단해수욕장	① 나진조선소 ② 6월12일공장
설명	- 북한 전역 및 함경북도 내 상당 비중 차지 - 냉장·냉동·가공 시설 확보 - 수산물 수출 중심	① 중국·러시아 부두 입차 ② 유류 전용부두 ③ 물류창고, 유류 저장고 증설	- 관광지 개발이 종합개발 계획(2015) 중 절반가량 차지	① 군용 선박 건조 ② 동해 최대 선박 수리공장

주: * 2022년 말 기준.

3. 해안관광도시 원산

원산은 동해안에서 바다와 육지, 서해안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며 군사 요충지이자 산업·물류 중심지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시가지 면적이 좁으면서도 군용·상업·공공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원래는 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개항과 더불어 대외무역을 개시하면서 항구도시로 발전했다.

원산시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철도·해운·교육·문화 부문의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철도차량 생산기지, 원산조선소, 농업·사범·공업·교원·수산·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송도원과 명사십리가 휴양지로 개발되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원산시 복구 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구·문화휴양도시로 건설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공업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해외 문화예술 공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대일무역에 힘입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2010년대에는 북한 해양도시의 전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원산의 해양수산 인프라에는 수산성 산하의 수산사업소뿐 아니라 군 산하의 대표적인 수산사업소가 있고 다양한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갈마식료공장, 원산수산대학과 동해수산연구소 등이 있다. 원산항에는 여객부두도 있는데 부산아시아안게임과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응원단이 타고 온 만경봉92호가 이곳에 있다. 해양관광지로 유명한 명사십리 일대는 갈마해안관광지수로 개발 중이다. 원산조선소는 1980년대까지 화물선을 건조했으며 원산수산기계공장은 강원도 내 어선 수리를 담당한다.

〈표 3〉 원산의 해양수산 인프라

	수산	해운·항만	해양관광	기타
주요 인프라	① 원산수산사업소 ② 조선인민군 15호·18호 수산사업소 ③ 갈마식료공장 ④ 원산수산대학 ⑤ 동해수산연구소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① 원산항(등록 상선 13척)* ② 해운 기업 3개	①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② 명사십리해수욕장	① 원산조선소 ② 원산수산기계공장
설명	① 도 내 최대 생산량, 도루묵 집산지 ② 표준어선 '단풍'호 운영 ③ 37가지 수산가공품 생산 ④ 어선건조·기계·항해·가공학과 신설 ⑤ 동해 어업·생태 연구	- 여객부두 및 화물부두 - 만경봉92호 (부산아시아안게임, 평창올림픽)	② 갈마해안관광지구	① 4,000톤 급 화물선 건조(1981) ② 도 내 어선 수리

주: * 2022년 말 기준.

IV. 북한 해양도시의 함의와 연구 필요성

남포, 나선, 원산은 북한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이 도시들은 시대별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심사가 정책화되는 중심에 있다. 남포의 서해갑문, 나선의 경제무역지대,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그러하다. 둘째,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측면에서 이 도시들은 모두 대외교류의 관문이다. 남포는 북한 전체의 대외교류 관문이자 평양의 관문이다. 나선은 북·중·러 교류의 관문이며, 원산은 북·일 교류의 관문이었다. 셋째, 이 도시들은 수산, 해운·항만, 해양관광, 조선 등 기타 분야에서 골고루 해양수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천, 신포 등 동해안 도시 일부는 자원 수송이나 수산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남포·나선·원산은 말 그대로 해양도시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 차이점은 남포와 원산은 다른 나라와 마주하지 않고 각각 한반도 동해안과 서해안의 가운데 위치한 군사 요충지이지만, 나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고 물류 중심지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선은 다른 해양도시와는 다른 층위에서 분석될 필요도 있다.

세 도시는 남북경협역의 역사 혹은 계획과 관련 있기도 하다. 남포에서는 대우와 평화자동차가 남북합작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⁶⁾ 국양해운은 1998년 8월부터 남포-인천 간 정기항로(월 4회)에 트레이드포준호(파나마 선적)를 취항시키면서 남포항 현대화에 투자했다. 나선에는 동룡해운이 1995년 10월부터 부산-나진 간 정기항로(월 4회)에 추성호(중국 선적)를 취항시켰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는 나진항 화물터미널 공사(2013년)와 시범 운송(3차례, 2014~15년)을 진행한 바 있다.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원산 인근인 안변에는 선박블록공장을 건설하려는 논의(10.4 선언)에 따라 남북경협 공동위원회 산하에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세 도시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의 해양도시는 대외교류의 관문으로서 시대별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정책을 구현하는 무대가 되었다. 또한 남북경협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동반하므로 도로 및 철도 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한, 해운이 주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양수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들은 남북경협의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설사 남북간 직접적인 경협이 아니더라도 이웃 국가와의 협력에서 북한의 해양도시가 매개로 이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 해양도시 연구는 북한 내부 사정을 이해하는 방편일 뿐 아니라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과 대외교류를 전망하고 모색하기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6) 남측 대우와 북측 조선삼철리충회사가 합작한 민족산업총회사는 남북경협사업 승인 제1호이다. 1998년에는 2천만달러 이상 수출하기도 했으나 2000년에 합영사업이 중단되고 현재 북한의 삼천리수출피복공장으로 전환되었다. 남측 평화자동차와 북측 조선민홍총회사가 합작한 평양자동차총회사는 2011년에 최고 1,820대까지 생산했으나 2012년에 합영사업이 중단된 후 북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 고유환 · 홍민 · 민유기 · 안재섭 · 기계형 · 남영호 · 차문석 · 조정아 · 박희진 · 데이비드 크롤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2013.
- 고유환 · 박희진 · 임동우 · 안재섭 · 홍민 · 기계형 · 남영호 · 이상준, 『함흥과 평성: 공간, 일상, 정치의 도시사』, 한울, 2014.
- 고유환 · 박희진, 『북한도시 함흥 · 평성 자료해제집 I』, 선인, 2013.
- 고유환 · 박희진, 『북한도시 함흥 · 평성 자료해제집 II』, 선인, 2014.
- 박성열 · 이은정 · 이정요 · 한지만,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제1호, 2021, pp. 129~162.
- 이상준 · 김천규 · 박세훈 · 신혜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국토연구원, 2011.
- 이상준 · 김천규 · 박세훈 · 신혜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국토연구원, 2012.
- 조정아,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 2004.
-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 2006.
- 최완규 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 2008.
- 홍민, 『북한 실태 연구 -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통일연구원, 2020.